

들리는 행복을 되찾는 순간까지



인공와우 이식 환자들을 돕는 인공와우클리닉 직원들과 이비인후과 간호사들.

“선생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네요. 직접 듣고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상적인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 한마디가 특별한 선물이 되는 순간, 서울아산병원 인공와우클리닉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이다.

“인공와우가 고가의 장비다보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보다’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 다. 다행히 후원으로 수술을 받으신 환자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하니 그 순간 활짝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셨어 요. ‘선생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양성화 전담간호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 느낀다”고 말한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효과적인 상담 제공

서울아산병원 인공와우클리닉은 1999년 4월 첫 수술에 성공하며 꾸준히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진행해왔다. 2017년 전담간호사가 상주하는 인공와우 상담실을 열었다.

“가끔 ‘이미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왜 못 들을까요?’하는 질문을 받아요. 재활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수술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못 듣는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를 상담을 통해 미리 알려드리고 수술을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실의 역할입니다.”

양성화 전담간호사는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지난 9월 8일 열린 인공와우 이식 2,000례 기념식 현장.

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와우클리닉에는 많은 수술 사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결과 예측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에 근거해 재활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지 등 환자가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제공해 수술 결정을 돕는다. 또 경제적 부담으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병원 사회복지팀과 연계하거나 외부 후원기관의 지원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서울아산병원이 저소득층 환자에게 수술치료비를 지원하는 '희망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환자 20여 명이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식수술 후 재활훈련도 적극 지원

인공와우 이식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매핑(Mapping)과 청각재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매핑은 환자의 청신경 상태에 맞춰 소리에서 변화되는 전기량을 설정해 정상적인 크기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청각재활훈련과 언어 평가도 필수다.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는 인공와우 기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를 뇌가 제대로 인지하기까지 충분한 훈련이 필요해요. 난청 기간이 너무 길거나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한 경우는 몇 년에 걸쳐 재활을 하기도 해요.” 박혜진 언어재활사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다가,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언어치료를 받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한다. 인공와우클리닉은 환자들이 재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성인 환자가 스스로 언어치료

를 할 수 있는 언어재활 프로그램을 연구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언어재활을 할 수 있도록 앱 형태로 개발해 접근성도 높였다.

이처럼 환자를 위한 인공와우클리닉의 끊임없는 노력은 지난 9월 인공와우 이식 2,000례 달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 9월 8일 열린 ‘인공와우 이식 2,000례 기념식’에는 인공와우 이식 환자와 보호자, 수술을 앞둔 환자들도 참여해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술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는 자신과 같은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듣고 싶어 하죠. 기념식에서도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기뻐하는 환자분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환자들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동행하고 싶습니다.”

글 편집부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직원들.